

2024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갈라디아서

메시지 5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

성경: 갈 2:19-20, 6:14-15, 롬 6:6, 눅 18:8, 고후 4:10-12, 5:14, 빌 3:10

- I.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를 본다.
- II.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성취된 사실이다 — 롬 6:6, 갈 2:20, 6:14.
- III.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 갈 2:20 상, 롬 6:6.
 - A. 갈라디아서의 ‘나’와 로마서 6 장 6 절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다.
 - B. ‘나’와 옛 사람은 우리의 존재이다.
 - C. ‘나’와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사실이다 — 갈 2:20.
 - D. 십자가에 대한 체험에는 세 방면이 있다. (1)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사실(롬 6:6), (2)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적용함(갈 5:24), (3) 우리가 적용한 것을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 체험함 — 마 16:24, 눅 9:23.
- IV.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 갈 2:20 중.
 - A.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주로 그리스도의 위임을 가리키는데, 그 위임은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키는데, 그 인격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한 것이다.
 - B. ‘더 이상 내가 … 아니라’라는 말은 교환된 생명, 즉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우리는 나간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 C. 거듭난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롬 6:6) 옛 ‘나’가 있고, 또 새 ‘나’가 있다. 바울은 옛 ‘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 아니라’라고 말하고, 새 ‘나’에 대해서는 ‘내가 사는’이라고 말한다.
 - D. 끝난 옛 ‘나’에는 신성이 없었지만, 옛 ‘나’가 부활하여 옛 ‘나’에 하나님께서 더해지셨을 때, 새 ‘나’가 되었다.
 - E. 한 면으로 바울은 끝났지만, 또 한 면으로 부활한 바울, 곧 그의 생명하신 하나님으로 거듭난 바울은 여전히 살고 있었다.
 - F. 더욱이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지만,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셨지만, 그분께서 바로 바울 안에서 사셨기 때문이다.
 - G. 이 둘, 곧 그리스도와 바울에게는 하나의 생명과 하나의 생활이 있었다.
 - H.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죽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 안에 사신다 — 빌 3:10.
 1.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이다 — 고전 15:45 하.
 2. 이 요점은 그 영께서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인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분이시라는 것이 제시되며 강조된 갈라디아서 2 장 20 절 다음의 모든 장에서 충분히 발전된다 — 갈 3:2-3, 5, 14, 4:6, 29, 5:16-18, 22, 25, 6:8.

- I. 타고난 사람인 ‘나’는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되려고 한다(빌 3:6).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서 표현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못 박히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 요 11:25 상, 빌 3:10, 고후 4:10-12.

V.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 갈 2:20 하.

- A.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다 — 딤후전 1:4.
 1.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는 유일한 길이다 — 히 11:6.
 2. 신약에서 ‘믿음’은 두 의미— 객관적인 믿음과 주관적인 믿음—를 갖는다.
 - a. 객관적인 의미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의 일에 관한 신약의 계시 전체를 가리킨다 — 행 6:7, 14:22, 롬 16:26, 고전 16:13, 딤후전 1:19 하, 유 3, 20.
 - b. 주관적인 의미에서 믿음은 믿는 행위를 가리킨다 — 눅 18:8, 막 11:22, 딤후전 1:19 상.
 3.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는 문제, 즉 믿음의 영역과 요소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문제이다.
 4.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타고난 영역이나 율법의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창조물의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 갈 6:14-15, 3:23-26.
- B. 신약에서 믿음은 신성한 방면과 인간적인 방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믿음이 하나님 편이 어떤 것과 우리의 편이 어떤 것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1. 하나님 편에서 ‘믿음’이 함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땅으로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어 부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다 — 고전 15:45 하.
 2. 우리 편에서 믿음은 듣고, 귀히 여기고, 부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합하고, 참여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넘쳐 흐름과 관련된다.
 3. 믿음은 사실상 우리의 존재 안으로 주입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삼일 하나님이시다 — 고후 5:7, 13:14.
- C.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 갈 3:26.

VI.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 갈 2:20 하.

- A.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나눠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 요 3:16, 13:1.
- B. 옛 인격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새 인격인 내 안에 사신다.
- C. 이제 우리가 사는 생명은 우리가 믿음, 즉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이다.
 1.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도록 강권한다 — 고후 5:14-15.
 2.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을 주셨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
- D. “그 무엇도 끊지 못해 / 영원한 우리 사랑 / 주와 나는 영원히 하나 / 그 무엇도 못 나눠 / 이 사랑 날 강권하니 / 주를 높이 찬양해 / 나는 그가 되고 또한 / 그는 내가 된다네” — 영한 동반 찬송 152장 4절.